성공창업 세 가지 필수조건

이상헌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창업을 결심한 예비 창업자들이 챙겨야할 많은 내용 중 모든 예비 창업자가 한결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유망한 업종은 과연 어떤 업종인가?'이다. 유망한 업종이 모든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유망한 업종을 선택하면 성공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업종의 유망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 필수조건 세 가지는 바로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이다.

첫 번째 성장성, 지금 당장은 큰 수익이 없어도 시장이 확대되면 반드시 전체 매출도 커질 것이고, 덩달아 돈을 버는 사업자도 많아질 것이다. 때문에 성장성은 유망업종의 판단 여부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성장성 요인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장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수준, 즉 충분히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버텨내지 못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자금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한 후 6개월 내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야 하고, 창업 1~2년 안에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업종과 성장성을 보는 또 한 가지 관점은 업종의 라이프 사이클 문제다.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업종을 유행 업종이라 하고, 긴 업종을 고유업종이라 분류한다. 유행업종의 경우 반드시 성장 단계 초입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반면, 고유 업종은 라이프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성숙기나 쇠퇴기에 창업을 해도 큰 위험은 없다. 결론적으로 성장성과 관련된 업종을 선택할 때 너무 앞서거나 뒤져도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안정성, 안정성이 있다는 말은 곧 시장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업종의 경우 잠재 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는 손쉽게 성공할 수 있으나, 새로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업종은 성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규 업종을 선택할 때는 숨어있는 수요, 즉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설득을 해서 이 사업에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안정성이 높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자금 회전속도와도 관련이 있다. 아무리 장사가 잘되는 업종이라도 지나치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안정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아무리 성장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아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유망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세 번째 수익성,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진이다. 마진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둘째는 투자비 문제다. 아무리 장사가 잘될 만한 업종도 투자비 부담이 너무 크다면 수익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투자비 부담이 크면 결국 전체적인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투자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회수 안 되는 투자비와 회수가 되는 투자비다. 점포 구입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점포 구입비는 대체로 회수되는 돈이므로 안심 할 수 있다. 단, 권리금이 많이 드느냐, 보증금이나 월세로 많이 들어가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다.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장소권리금 등으로 영업권리금의 경우 점주의 능력이 떨어지면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시설권리금의 경우 해당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해당 시설을 인수하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뜯어고치게 되거나 하면 손해가 나므로 이 또한 잘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경제성도 따져봐야 한다. 월세는 얼마나 드는가, 인건비가 많이 드는가, 재투자비가 많이 드는가, 홍보 및 접대비는 많이 드는가 등의 여부다. 이상의 세 가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만족된다면 그만큼 유망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우산 없는 탈북자 교육

기자 수첩
이 범 종
(정책사회부)

장마를 보름 앞둔 지난달 18일. 교장 선생님 인터뷰를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중학교를 찾았다. 햇살 가득한 운동장과 방학을 기다리는 아이들. 감상에 젖던 나의 눈길은 파란 신호등을 따라 학교에서 멀어져갔다.

이날 교장 선생님은 학교 맞은편 상가 지하 1층에서 만나자고 했다. 35년간 교편을 잡던 국어교사가 교장으로 부임한 첫 날의 암담함. 말 안 듣던 학생들이 우여곡절 끝에 마음을 연 이야기. 교사의 서비스 개념에 익숙한 이 시대 어딘가에도 스승은 살아있었다.

커피가 식을 무렵, 상가 복도에서 학교 종이 울렸다. 중국어와 북한 말투가 뒤섞인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탈북자 대안학교 '한꿈학교' 학생들이다.

상근교사 7명이 26명을 가르치는 이곳 졸업생들은 고려대를 비롯한 명문대 진학과 기술직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 같은 결과는 '인간승리'에 가깝다.

김두연 교장은 "2015년 3대 교장에 부임한 뒤, 수업 도중 기절하는 학생들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난의 행군을 겪은 청년들이 종종 쓰러진다고 한다.

그는 이후 하루 세끼 식사를 장려했다. 학생들은 점심 식사 후 밖에 나가 햇볕에 몸을 말린다. 과목 수준별 맞춤 교육도 도입됐다.

그 결과, 걸핏하면 쓰러지던 한 학생은 현재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 2학년이 되었다. 학과 3등이라고 한다. 김 교장의 지인 네 명이 역할을 나눠 전화와 외식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기절에 대비하고 있다. 해마다 졸업생은 늘고 있지만, 이 같은 도움을 계속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개교 14년째 지하를 못 벗어난 학교의 천장은 누수로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김 교장은 "기숙사는 천장이 썩어 곰팡내가 심각해 살 수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 교장의 배웅을 뒤로하고, 따스한 햇살을 머금은 중학교 건물을 다시 보았다. 일년내내 장마에 시달리는 탈북자 학생들이 저 학교를 바라보며 등교하고 있다. 장밋빛 대북사업 전망에 휩싸인 이 나라는, 장맛비에 젖은 인재들의 마음을 얻고 있을까.

/joker@metroseoul.co.kr

인사

◆ **국방부** △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장 용승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파견 이상옥 △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 문상동

◆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 인사관리국장 신영숙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정무설

◆ **문화재청** ◇ 과장급 전보 △ 천연기념물과장 전기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문영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전칠수 △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장 김성도 △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장 김한옥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장 이용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위원(2급) △ 강은나 △ 고숙자 △ 고제이 △ 김대중 △ 김동진 △ 김문길 △ 김현경 △ 류정희 △ 변수정 △ 신정우 △ 이상림 △ 이수형 △ 정해식 △ 황남희

◆ **NH투자증권** ◇ 부장 신규선임 △ 부동산금융2부 김의수 △ 종합금융부 한창구

◆ 하나금융투자 ◇ 부서장 선임 △ 부동산금융실장 박재현 △ 신용리스크관리실장 윤현석

◆ **ABL생명** ◇ 승진 △ 경남지역단장 이경환 △ 강원지역단장 박종명 △ 법무부장 이선명 ◇ 전보 △ 부산지역단장 이영락

◆ **유씨엘** ◇ 승진 △ 영업부 총괄 상무이사 서정주

◆ **한국디자인진흥원** ◇ 보직임명 △ 전략경영본부장 송현민 △ 감사윤리실장 윤병문 △ 디자인혁신실장 윤성원 △ 전략기획실장 허석 △ 경영지원실장 최기열 △ 인재육성실장 맹은주 △ 선행연구실장 김태완 △ 플랫폼개발실장 이동현 △ 서비스디자인실장 강필현 △ 산업지원실장 손동범 △ 대외협력실장 홍민석

부음

▲ 유철종(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유영훈(연세대 의대 교수)·유영미(서경대 아동학과 교수)씨 부친상 = 2일.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천실, 영결미사 4일 오전 10시 063-250-1439

▲ 김수일씨 별세, 김해구(동양생명 방카슈랑스 본부장)씨 부친상 = 1일 오전 9시 43분,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국화원 VIP 201호, 발인 3일 오전 5시 30분. 053-560-7575

▲허덕조씨 별세, 허진철(금융감독원 팀장)씨 부친상 = 1일,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3일 오전 10시30분. 031-329-5991

▲ 윤기창씨 별세, 윤종진(경북도 행정부지사)씨 부친상 = 1일 오후 10시,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4일 오전 8시. 054-245-044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 고 문 의	02)721-9851,9826
독 자 센 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98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083호

WeGO 사무총장에 이경렬 국립외교원 교수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에 이경렬 국립외교원 교수(56·사진)가 임명됐다.

WeGO는 세계 도시 및 기업간 스마트시티 우수 정책과 혁신적 기술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의체다.

서울시는 WeGO 사무총장에 이경렬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WeGO사무국의 사무총장은 WeGO 규약에 따라 WeGO 의장이 임명하며,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러시아 울리야놉스크에서 열린 제4차 총회에서 의장도시로 재선출된 바 있다.

/오진희 기자

NH농협은행, 1회 아마추어 배드민턴 대회 성료 NH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아마추어 배드민턴 랭킹리그 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40여개 시·군에서 1200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인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NH농협은행

한화투자證, 빅데이터분석 전문 자회사 출범 한화투자증권은 2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 전문회사인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은 모회사인 한화투자증권에서 10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 회사이다. /N한화투자증권

한국도로공사, '길 사진 공모전' 개최

이달 한달간,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

한국도로공사는 7월 한 달 간 '제17회 길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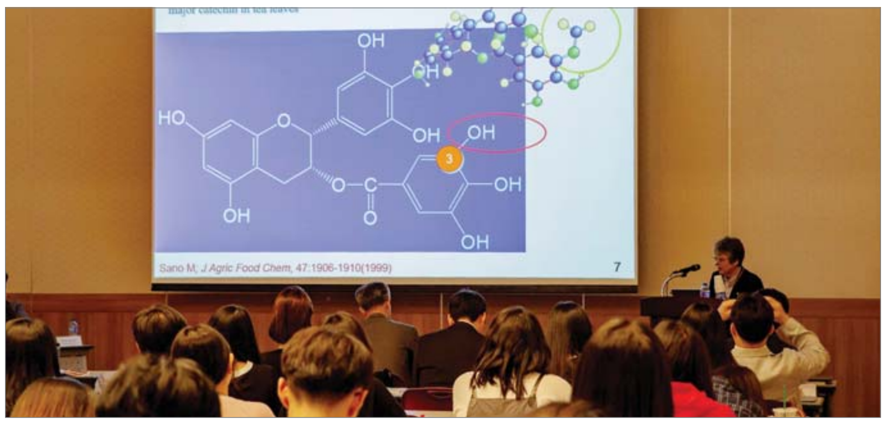
이번 공모전은 사진 공모전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길' 사진을 발굴해 우리나라 길의 아름다움을 국민들과 공유 하고자 기획됐다.

공모는 우리나라의 길을 소재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도로를 촬영한 사진은 물론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등 도로 위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도 출품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 사진 수는 1인 5점 이내로 제한된다.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한국도로공사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및 사진 출품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8월중 발표된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규모는 2380만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5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아모레퍼시픽, 녹차심포지엄 개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6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한국식품과학회 주최 2018년 국제학술대회에서 '녹차와 건강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녹차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녹차가 건강에 미치는 우수한 효과를 알리고 최신의 지견을 나누고자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에는 국내외 학계, 기관, 기업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녹차의 우수성, 새로운 기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아모레퍼시픽